\* 취합 전 제 ppt부분 기준으로 작성된 대본입니다.

[ slide 1 ]

저희 팀은 이전까지 공부했던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고 싶었고, 암호화폐가 요즘 핫한 시계열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slide 2 ]

먼저 암호화폐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가상 화폐라고도 불립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유통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유지되는데 이 시스템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코인형태의 수수료를 받는 참여자를 채굴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암호화폐는 정부가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slide3 ]

실물 화폐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의 장점은 생산이나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고 과세기준이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 slide4 ]

대표적인 코인으로 두 가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들 수 있고, 사실 암호화폐 종류가 한두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들이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므로, 그것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후에 대표적이고 가장 규모가 큰 5가지 암호화폐를 선택해서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볼 예정입니다.

* 아마 이 이후에 내 ppt의 분석 배경이 들어갈 듯. 그래서 이 말로 잇는다

: 또한 저희는 암호화폐의 가격을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예측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경제지표와는 다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급등과 급락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일수익률을 구해보았습니다.

[ slide5-6 ]

이러한 심리지표를 얻기위해 저희는 감성분석을 사용할 것입니다.

감성분석이란 어떤 주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 감정, 태도, 개인의 의견들을 텍스트로부터 뽑아내느 분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좋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긍정으로 분류하고 ‘괜찮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중립, 그리고 쓸모없어와 같은 단어가 있으면 ‘부정’으로 분류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긍정/중립/부정 중 어떤 평가들이 많은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 이 이후 대제목 2: 유진이 파트로 넘어감.

**[ 유진이 파트 – 대제목2 ]**

[ slide 1 ]

이제 분석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많은 암호화폐 가운데, 가격, 시가총액, 거래량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코인 5가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카르다노를 선택했습니다.

[ slide 2 ]

이 5가지 코인의 시계열 데이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짜는 가장 최근의 코인이 등장하여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시가는 오전 9시의 가격을 의미하고, 종가는 오전 8시 59분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가는 하루에 가장 높았던 가격, 저가는 하루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은 최근 24시간의 거래량을 의미하며, 시가총액은 암호화폐 유통 시장의 전체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 slide 3 ]

5가지 코인의 하루 거래량을 비교해본 결과, 5가지 코인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slide 4 ]

그리고 5가지 코인의 가격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보여지는 시계열 그래프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 상승세도 더 가파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slide 5 ]

또한, 5가지 코인 모두 가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 slide 6 ]

하지만 5가지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본 결과, 다른 지표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 비트코인 크게 상승 아님?

[ slide 7 ]

그런데 여기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채굴된 모든 코인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시가총액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가 시가총액을 사용해서 투자 정보를 보충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고, 시가총액을 통해 잠재력과 투자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채굴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가총액의 규모는 가격과 거래량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slide 8 ]

저희는 또한 코인들의 가격데이터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지만 특히 최근에는 가격의 꾸준한 상승세로 인해 각 코인들의 가격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slide 9 ]

따라서 저희는 위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여러 암호화폐들 중 가격과 거래량, 시가총액이 1위이며, 상관분석 결과 다른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트코인을 이후 분석에서 암호화폐 데이터로 사용할 것입니다.

**[ 내 ppt로 넘어감 – 대제목 3 ]**

**[ 재현이형 part – 대제목 4 ]**

**[ 세령누나 part - 대제목 4 ]**

[ slide7-9 ]

----->뉴스기사개수와 btc수익률 추이 그래프 그리고, 뉴스기사개수에 따른 가격분포 그래프는 취합 후 흐름에 따라 설명 추가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도)

#slide 10

단순히 수치적으로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관련 뉴스들의 개수가 많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 정우가 ppt만든 앞부분이랑 내용 겹치는 부분 있어 연관 지어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정우파트는 완전 앞부분이라...취합 본 보고 내용 추가예정

#slide 11전(부터는 그래프 이후 슬라이드를 넘기면 기사의 헤드라인이 뜹니다.)

먼저, 저희가 조사한 2013년부터 2021년 중에서 기사개수가 가장 많은 날짜들을 뽑고

그 날은 왜 기사가 많았는지 살펴보았는데, 시간의 흐름을 보기 위해 기사 개수가 많았던 top3를 날짜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lide 13

세번째로 기사수가 많았던 2017년 12월 11일에는 비트코인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 첫 거래를 시작했다는 관련 기사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선물거래란, 거래 당일에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약속만 하고 물건과 돈의 교환은 나중에 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래 특정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한 계약으로, 거래소를 통해 체결되는 것을 선물거래라고 합니다. )이 날의 기사 개수는 682개로 조사기간 중 세번째로 가장 많았으며, 수익률은 전날 대비 하락한 -0.027정도를 기록하였고, 종가기준 1880만원대를기록하였습니다.

#slide 11

첫번째로 가장 수가 많았던 2017년 12월 13일에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한 뉴스가 많았고, 막상 회의 결과를 보면 주로 금융기관과 미성년`외국인의 거래에만 제한을 두어 생각보다 규제가 약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익률은 -0.009정도로 전날 대비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종가기준 183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slide 12

또 두번째로 많았던 2018뇬 1월 11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을 발의 중이라 밝히고 나서 5시간 뒤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하루 종일 장이 혼란스러웠고, 하루에 저가 1463만원대에서 고가 16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도 수익률이 종가기준 하락세를 보였고 가격은 1495만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2017-18년대에는 주로 국내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체 기간 내에서 기사 개수로는 상위10개이내에 들지 못했지만, 최신의 비트코인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을 기준으로 기사개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의 날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slide 17

2021년 중 기사개수가 2번째로 많았던 2월 9일에는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1조 7000억원을 사들인 것과 더불어 앞으로 테슬라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도 있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기사가 많았고, 이 날의 수익률이 전날 대비 0.034정도 증가하면서 종가는 5180만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slide 18

다음으로 기사개수로 3번째, 첫번째,4번째를 기록한 2/22일부터 24일까지 관련 기사를 보면,

역시 머스크의 발언이 화재였는데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투자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가 "금이 비트코인과 종래의 현금보다 낫다"고 밝히자 머스크는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고 트위터에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2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발표한 기사가 많았고, 또 미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이라고 단언한 뉴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날의 기사 개수는 454개로 2021년중 3번째로 기사수가 많았고, 수익률은 0.11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종가 기준 6000만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slide16

마지막으로 4번째로 기사개수가 많았던 24일에는 미국의 온라인 결제업체인 스퀘어가 작년말 비트코인 1900억원어치를 샀다는 것을 공시하여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2021년에는 해외 기업가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관한 이슈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사 개수와 비트코인과의 관계성은 없다는 결론이었지만, 이러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 이를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보고자 2주차 부터 감성분석을 이용하여 감성지수 또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 감성분석 할 예정이면 이거 언급)